

# 광주·전남 상생축제 ‘빛가람페스티벌’ 열린다

18~19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

공연·체험·마켓 등 다채·화합소통의 장

광주·전남 상생축제인 ‘빛가람페스티벌’이 오는 18~19일 나주 빛가람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전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2025년 제11회 빛가람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빛가람페스티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정체성과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1만여 명이 참여해 혁신도시 소통과 화합의 장

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는 ‘온리원(Only One) 빛가람, 모두가 하나되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째날인 18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개막식,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빛가람 합창단의 무대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나주시립합창단, 전남도립국악단 공연과 함께 빛가람동 주민들이 참

여하는 장구난타·라인댄스·줄넘기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버블·별론 퍼포먼스, 어쿠스틱 밴드, 크로스오버 팝페라 무대가 준비돼 있으며, 초대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히트곡들을 열창한다.

끝으로 폐막식과 불꽃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플라마켓, 사회경제제이마켓, 푸드존,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체험부스(비즈팔찌·비누·민속놀이 등), 반려동물 놀이터, 흑백사진관이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아 미술작품 전시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광안 시 행정부시장은 “‘빛가람 페스티벌’은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상생 축제”라며 “문화·예술·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식품 기업 美 수출 경쟁력 향상

FDA 식품안전 규제 방안 교육

정부가 국내 농식품 기업의 미국 수출을 위해 현지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교육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전문가(QI, Qualified Individual) 교육’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FSVP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핵심 제도로,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의 까다로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자격 담당자(QI)를 지정해야 하며, QI는 전문 교육을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입자는 QI 교육을 이수하면 소속 회사의 FSVP 서류를 직접 작성·서명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수출자가 대부분의 정보를 준비·제출해야 수입자가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어 수출업체도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2개 차수로 나눠 서울에서 진행된다. 1차는 다음달 3~4일, 2차는 다음달 5~6일에 열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교육기관 감사진이 참여하며 △FSVP 개요 △위해요소 분석 실습 △해외 공급업체 검증과 문서 관리 △FDA 조사 대응 △신규 라벨링 규정 △식품 통관 절차 등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국 공인 변호사가 강의에 참여해 FDA·관세청 자료와 실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교육 수요 시 식품안전 예방관리협회(FSPCA,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 수료증도 발급된다.

교육비는 aT가 80%를 지원해 참가자는 약 20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한전MCS 직원, 지분 가진 업체와 수익계약 징계

ESG 사업·사무실 개선 등 개입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MCS의 직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가 수익계약을 맺도록 규정을 어겨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지난 2023년 8월 한전MCS가 전기 검침원을 통해 고독사를 막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전MCS ESG사업기획팀장이던 A씨는 전 직장인 한전의 다른 자회사에서 함께 일한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고독사 예방사업 계약을 파내도록 계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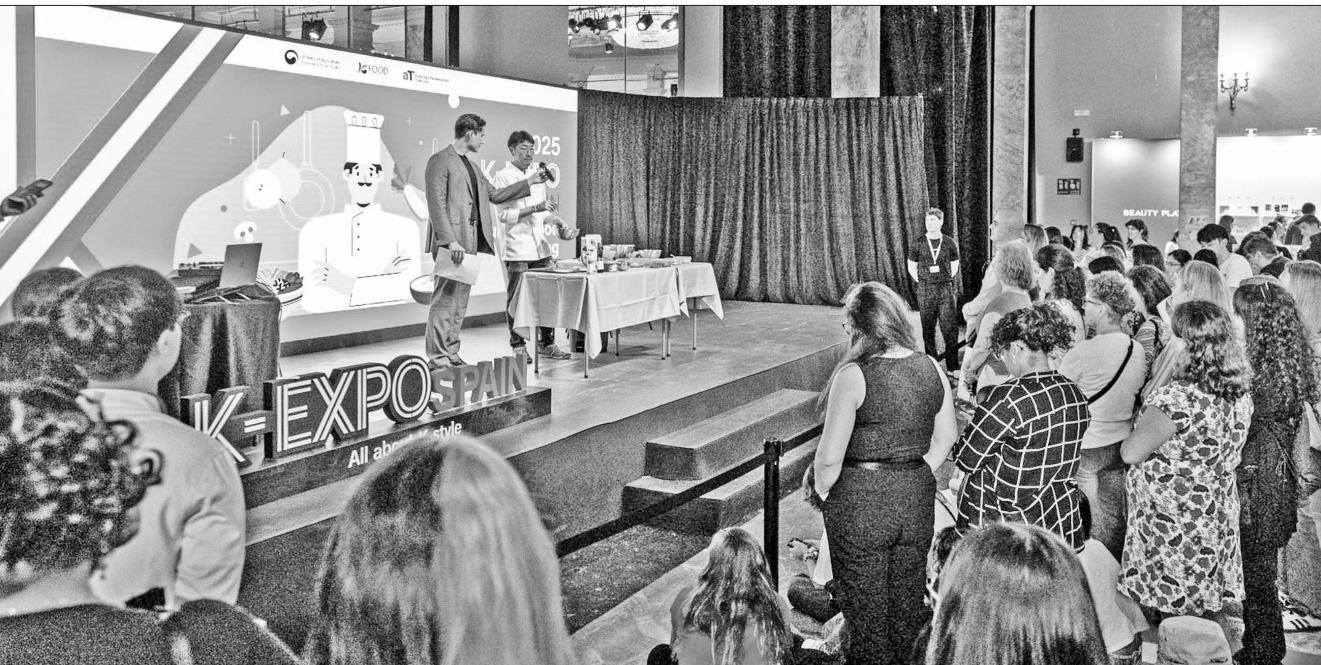
12개로 쪼개 수익계약을 맺었다.

A씨는 동료의 요청으로 해당 회사 지분 15%(3000만원 상당)를 보유한 상태였다. 회사가 한전 MCS와 맺은 계약은 약 1억9540만원 규모였다.

A씨는 2023년 한전 MCS의 사무실 개선사업도 지인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분할해 수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동료와 상급자는 수익계약이 타당하지, 계약 규모가 큰 만큼 감사실에 일상 감사를 요청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MCS 감사실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해임, 나머지 관계자 2명에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선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테스 예술센터와 리우호텔에서 ‘2025 K-엑스포: 올 어바웃 케이 스타일(All about K-style)’을 개최했다. 사진은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1 준우승자 박준우 셰프의 ‘K-푸드 쿠킹쇼’.

스페인 마드리드서 ‘K-콘텐츠’ 조명

2025 K-엑스포 개최…OST 공연·댄스 경연 등 진행

K-콘텐츠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2025 K-엑스포: 올 어바웃 케이 스타일(All about K-style)’이 유럽 현지로부터 주목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르테스 예술센터와 리우호텔에서 2025 K-엑스포: 올 어바웃 케이 스타일(All about K-style)를 개최했다.

행사는 콘텐츠부터 식품, 뷰티 등 한류 산업 전반을 소개하는 종합박람회로, 지난 8월 캐나다에 이어 스페인에서 한국-

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열렸다.

특히 K-드라마 삽입곡(OST) 공연이 인기를 끌었다. K-드라마 삽입곡 공연은 오전 6시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국내 아티스트 홍이삭·벤·최유리 등과 현지 아티스트 라라 베니토가 함께 꾸민 무대는 고풍스러운 극장 분위기와 3면 엘리디(LED) 연출이 어우러져 K-드라마의 감동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웹툰 ‘신의 탑’의 원작자인 시우(SIU) 작가의 팬사인회, K-팝 랜덤 댄스 경연, 인기 게임 체험 등도 펼쳐져 K-컬처에 대한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음식부터 뷰티, 전통에 이르는 콘텐츠도 호응을 이끌어 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1 준우승자 박준우 셰프가 K-푸드 쿠킹쇼를 비롯해 아이돌 메이크업쇼,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까치호랑이를 찾으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열렸다. 콘텐츠, 화장품, 수산 분야 국내 기업 60개사가 유럽 5개국에서 온 현지 바이어와 총 465건, 2만637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10건의 업무협약도 체결돼 K-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K-엑스포’는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 AI활용 역량 강화 집중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사적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나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행력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맞춰 공사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실습, 의사결정 과정 활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농어촌 현장에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도록 실습에 무게를 둔 교육도 운영 중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요청 1688-9959

내일의 꿈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궁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솔루션 검색